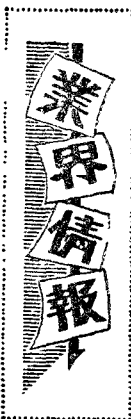


제주도 지부 창립총회 개최



대한 양계협회 제주도 지부가 지난달 8월 14일 제주도 락키예식장에서 결성 되었다. 대한 양계협회는 서울, 경기지역을 관장하는 본회를 중심으로 경북지부, 부산지부, 부산경남지부, 전북지부, 전남지부, 충남지부, 제주지부 등 총 6개지부와 동두천분회, 포천분회 등 2개 지회의 결성을 보아 양계인을 위한 협회로서, 면모를 더욱 넓히게 되었다. 이번 제주도 창립총회는 지난 7월 1일 제주시 아주반점 별관에서 제주도 양계인들이 참석 창립총회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에 이어, 지부창립을 위해 꾸준한 협의를 계속한 이래 이번에 창립을 보게 되었다. 이번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제주도 지부장에는 고경무씨가 부지부장에는 유덕윤, 양재희씨가 총무이사에는 김태열씨가 각각 선임되었다. 앞으로 제주도지부는 도지부의 창립과 더불어 회원 상호간의 협조는 물론, 양계에 관한 지식, 기술 및 정보를 교환하여 양계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번 새로이 결성된 제주도 지부의 임원 및 회원명단은 아래와 같다.

<관련확보계제 참조>

임원:

지부장: 고경무

부지부장: 유덕윤, 양재희

총무이사: 김태열

이사: 김현대, 장문환, 강태호, 이영배,

김윤홍

감사: 김철수, 고 썩

채란분과위원장: 고안근

육계분과위원장: 고성현

회원: 윤태현, 송원현, 홍정관, 노재남,

이태중, 강대운, 김영환, 송중부,

김두표, 한정희, 최봉환, 송중호,

부태화, 고병주, 오행희, 이평우,

김승림, 강태수, 김달홍, 현영기,

문원희, 임문보, 문영봉, 현조길,

양민웅, 현승림, 현석암, 신인근,

김상호, 오명국, 오두옥, 엄창신.

동두천분회 일선장병에 계란보내 위문

—지난 8월 13일 전방 ○○사단에—

대한 양계협회 동두천분회(분회장: 최진삼)는 지난 8월 13일 전방 ○○사단에 계란을 전달 장병들을 위문했다. 지난달 전국양계인이 전방지역에 계란을 보내 장병들을 위문한바 있는데, 이번 동두천 지역내의 양계업자들만이 수집한 계란 3,930개를 전방 장병에게 전달했다. 이번에 일선 장병에게 계란을 보낸 양계가는 다음과 같다.

전흥기 220개, 박경상 280개
정 현 110개, 한상균 220개
조진규 110개, 이호장 440개
신현인 280개, 왕희재 1,100개
박용호 110개, 이규민 110개
김성대 110개, 신균규 110개
이기현 60, 김창환 110개
안병화 40개, 김준기 60개
장용균 280개, 정중호 60개
신영부 110개.

9월부터 산란계 초생추 170원 받기로

<부화인 친목회>

부화인 친목회(회장: 강금노)는 지난 8월 20일 정기 친목회를 갖고 부화인간의 우의를 다지는 반면, 9월부터는 산란계 초생추 1수당 170원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 이길원 씨 : 서해농산으로
- 박건영 씨 : 새원사료
영업과장으로

전국지방 순회 강습회 성료

—서울, 전주, 부산, 대구, 춘천 5개지역에서—

본회가 매년 전국의 양계 주산지를 순회하면서 지역간의 양계기술의 격차를 해소하고 양계인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지방 순회강습회가 지난 8월8일 서울을 출발점으로, 8월21일 전주 8월23일 부산, 8월26일 대구, 8월29일 춘천을 마지막으로 무사히 끝났다. 이번 하계강습회는 유운수 사료협회회장의 사료수급의 전망, 안양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과장의 닭질병 방역프로그램과 공동방역, 퓨리나코리아(주) 이현남 경리부장의 정당한 방위세 납부와 양계장의 장부기장방법에 대한 강연을 가졌다. 지난 8월8일 서울 여성회관에서 개최한 강습회에서는 신춘가금부화장장

금노씨의 계분사료화이용에 대한 신춘부화장의 실험성적발표도 아울러 가진바 있다. 이번 강습회는 예년과는 달리 많은 양계인들이 참석하여, 양계인의 관심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알수 있었다. 특히 방위세 실시와 함께, 이번 양축가를 위한 방위세 해설 강연은 그 어느때보다도 시의 적절한 주제라 하겠다. 강습회에 참석하지 못한 양계가를 위해 본 월간 양계지에 강습회 내용을 전재했다. <편집기사 25페이지부터>



제9회 산란계, 제7회 부로일러, 능력검정종료

대한양계협회 닭 경제능력검정소가 실시하고 있는 제9회 산란계 능력검정과 제7회 부로일러 능력검정시험이 종료되었다. 지난 8월9일 종료된 제7회 부로일러 능력검정은 지난 6월13일에 14구를 입추, 8주간의 검정시험

을 마쳤으며, 제9회 산란계 능력검정시험은 지난 1973년 4월 1일에 총 10군을 입추, 500일간 의 검정을 무사히 마쳤다. 이번 검정완료된 성적은 본회 검정위원들의 엄밀한 분석을 거쳐 월간 양계 11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어의 회화가 가능하여 현지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득자, 외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지를 갖춘감별사가 진출할때는 최저 300~800만원의 수입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모한 외국진출이 국가의 명예를 손상시키게 됨으로 적어도 해외 감별사로 취업을 원할때 피나는 노력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라 하겠다. 기존 감별학원에서 감별을 배우는 이들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기술습득은 물론 꾸준한 어학의 수련이 필요하며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교양을 쌓는데도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우선 감별을 배우려는 분들이 대한양계협회를 찾아 앞으로의 진로를 상의하면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윤중덕 유럽 총지부장 본회에 금후 유럽파견 감별사 초청방안 및 대책통보

본회 유럽총지부장 윤중덕씨는 지난 7월21일 본회에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제출, 금후 유럽파견 감별사 초청 및 그에 따른 대책을 본회에 통고해 왔다.

현재 유럽에서의 감별사 취업은 실업자의 과잉에 따라 노동허가의 취득이 어려워, 한국감별사를 고용할만한 곳에 협조타진 결과 비 협조적이었다고 보고해 왔는데 총지부의견으로는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새로운 방향설정과 과감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현 유럽에 주재하고 있는 실직 감별사를 귀국시키고 앞으로의 감별사 파견은 총지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할때 국내에서 시험을 거쳐 파견하도록 하고있다. 앞으로 감별사가 해외 취업을 원할때 시간당 1,200수로 99%이상을 감별할 것은 물론이지만, 영어, 혹은 독일

※ 양계 협회 순회 강습회중 총남지부는 9월 7일 홍성지방에서 강습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유리브리드 협의회 하이섹스 7권 발간

한국유리브리드 협의회(회장:이계조)에서 발행하는 제간지 "하이섹스" 7권이 지난 8월10일에 발간되었다. 한국유리브리드 회원들이 한국의 양계발전을 위해 발행하는 하이섹스지는 외국의 기술정보를 신속히 소개하여 양계가에 도움을 주고있다. 이번 하이섹스 7권에는 "이계조"회장의 사육관리에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사양관리의 명칭 "백신접종" "백열전구와 형광등" 급수관리등과 알값의 계절적인 변화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부로일터의 케이지 육성으로 이익을 높이는 방법, 코라이자의 예방법, 전국 에리트 양계인이 좌담으로 엮은 "좋은 햇닭으로 키우는 육성기법"들이 수록돼 있다. 하이섹스지를 필요로하는 양계인은 100원 우표를 동봉, 서울 성동구 성내동 50-1 천호 부화장으로 보내면 우송해 드린다고 한다.

부산농협사료, 공장도 가격으로 사료공급

서울유협동조합(조합장·최영규)은 농협 부산 사료공장을 사료공급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양계, 낙농, 양돈등 농협 부산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사료를 공장도 가격으로 양축가에 공급키로 했다. 공급방법을 보면 낙농사료 이외의 모든 배합사료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서울유협의 책임하에 지정된 장소까지 공급하며, 신청한 사료에 대하여는 신청조합에서 책임인수

해야한다. 서울유협에서는 가능한 한 신청시에 대금의 50% 이상을 조합에 납부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운임 및 기타 조작성비는 부산공장에서 지정한 한도까지는 공장측에서 부담하며 초과액은 인수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서울유협은 경비절감을 위해 10% 단위로 신청을 바라며 기타 운임, 경비등은 수시로 서울유협 사료과에 협의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 전

● 대구축협(조합장:백승덕) 행정구역이 바뀜에 따라 7월 9일 번어동 8-31에서 만촌동 1023의 7로 이전함.

● 동양농산(대표:권승주): 사무실을 종로구 율회동 비원앞에 있는 가든호텔 1503호실로 이전하고 9월부터는 센터키후라이드 치킨을 본격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인사이동

● 김진위씨: 푸리나<주> 농장으로 전임.

● 전창남씨<서울대졸>: 한두교역에 입사

● 조원남씨<서울대졸>: 천일곡산<주> 사료부에 입사

등 정

● 이문부화장 대표인 이창열씨는 지난 8월 10일 3시 JAL기편으로 인도네시아,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을 순방하며 한국과 관계국간의 양계업 및 사료업의 합작관계를 토의하기 위해 약 한달간의 예정으로 김포공항을 출발.

● 송찬원씨(농수산부 축산과장)는 스위스 정부의 초청으로 약 2주에 걸쳐 스위스의 산악축산을 시찰할 예정이다. 송과장은 영국에도 들러 영국축산상황도 아울러 돌아보고 올 예정이라 한다.

축산시험장 75년 축산기술교환 협의회 개최

축산시험장(장장:김상철)은 지난 8월14일 성환에 소재한 국립종축에서 관련단체 및 임직원들 초빙 75년도 축산기술교환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국산계의 개량시험성적검토, 미국곡물협회 초청강사의 증돈사양관리세미나, 기타 축산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변 경

● 위립상사(대표:심창원)는 8월 9일 자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변경된 전화번호로는 76-6772, 76-8610, 76-7270, 76-7480, 76-6596으로 변경 되었다.

● 삼성사료(주)(대표:정인범)는 8월 30일 24.00시를 기해 삼성사료 광주출장소의 전화번호가 2-2841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 미국사료곡물협회의 전화번호가 23-2821~2로 변경되었고 광화문 P.O. Box 1004가 신설.



우리나라 양토사업의 현황과 시책

<농수산부>

지난 년초에 대통령이 지시한 조식성 가축 사육의 장려일환책으로 양토와 면양에 대하여 시책방향을 확정하여 추진하던 중 6월 13일 새마을 국무회의에 슬라이드로 중간 보고한 내용중의 양토부분만을 축산 정보 111호에서 발췌하여 게재한다.

개발보급. (2) 농가부업 사육장려. (3) 우량종토 도입. (4) 시범사업 확대실시.

제 2단계(77~78년) (1) 양토마을 확대. (2) 우량종토 증식보급. (3) 유통체계 개선.

제 3단계(79~80년) (1) 농가양토 량산추진. (2) 양토산물 수출확대.

라. 추진상황

(1) 토육가공 및 조리법 개발

① 햄-소세지 제조, 건조육 제조시험 및 토육 요리법의 개발. ② 토육 시판화를 위한 토육가공 품개발, 토육냉장, 냉동시판시험 및 토육조리법 등을 추진 중에 있다.

(2) 토육이용법 보급

농촌은 조리시설이 완비된 707개 식생활개선 시범새마을 부녀회원을 상대로 월 1회 기타 마을에는 4H여자회원들에게 년중 요리강습회를 실시하고 주부교실중앙회와 식생활개발연구회는 도시를 대상으로 50회에 걸쳐 16,800명에게 강습을 실시하였으며 “토끼요리” “토끼고기 요리” 등의 유인물 배포 및 배스콤을 통한 13회의 계몽을 실시하였고 10개시도에 판매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에 있다.

(3) 종토개발

국립종축장에 종토장을 설치운영 중이며 10개 도립종축장은 76년도에 종토장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4) 사양기술 개선

농촌진흥청과 국립종축장에서 양토사양 시험 중이며 양토영화의 제작 및 각종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5) 토피, 토육유통 관계

농협중앙회와 대한양토협회간에 토모피 수매계약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유통체계를 도표로 표시하면,

마. 토증식계획

75년에 100만, 77년 144만, 79년 207만, 81년 304만수로 증식시켜 연간 5.600%의 토육과 423만 마의 토모피를 생산하여 수입대체하도록 한다.

1. 양토사업의 현황과 시책

가. 현 황

(1) 양토사육 추세

우리나라의 양토사육 추세를 보면 1971년도에는 36만수를 14만호가 사육하였으나 1974년도에는 2.4배 증가한 85만수를 사육하고 있다. 또한 100수 이상 사육하고 있는 전업양토가는 1971년도에 52호에 불과하던 것이 1974년도에는 3배로 늘어난 164호에서 45,500수의 토끼를 기르고 있으며 1974년도 총 사육수수 848,394수 중 품종별 분포를 보면 모피, 육결용종인 개량백색종이 36%, 친치라가 6%, 모용종인 앙고라가 5% 그리고 기타 잡종이 53%의 사육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2) 토모피 수입과 수출상황

토모피 제품의 보세가공 수출상황은 1973년에 1,667천매의 토모피를 48만볼로 수입하여 처리 가공한 후 코트와 자켓트 등을 만들어 4,809천볼을 수출하였으며 1974년도에는 7,095천매의 토모피를 3,686천볼로 수입하여 9,394천볼어치를 수출하여 높은 가격율을 올리고 있다.

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양토가 장려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들여보면,

첫째, 토끼고기가 대증식육으로 거래되고 있지 않다. 둘째, 가축단위당 수익성이 저조하다. 셋째, 사육기술이 미흡하다. 넷째, 조식가축이라고 하더라도 번식기와 육토생산에 위하여는 농후사료의 이용이 불가피한 점이다.

다. 시책방향

제 1단계(75~76년) (1) 토육, 토모피 이용법